

체화없는 계란유통 구현



유통개선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수 지부장

강원도 양계 집산지 원주

강원도는 산 좋고 물 맑은 지역으로 버섯, 복숭아, 쌀, 옻나무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양계산업도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원주채란지부(지부장 박영수)는 원주시 일산동에 위치한 원주축협(조합장 안사현) 3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36농가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육규모는 120만수를 자랑하고 있다.

원주채란지부의 역사는 과거 양계집산지인 경천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서로간의 화합된 힘으로 현재 고문으로 있는 김재철, 이인수 씨 등 7명이 1980년대에 계우회를 조직하면서 태동이 되었다. 이후 90년대 들어서면서 분회장을 지낸 정호홍, 전익표 고문이 원성군 계우회, 횡성계우회, 무실동계우회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던 양계인들을 한자리에 집결시키면서 현재의 원주 채란지부가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원주채란지부는 박영수 지부장을 필두로 회원은 물론 유통상인, 사료회사 대리점, 노계·중추업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 양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계란 유통개선을 통한 회원들의 권리앞장

박영수 지부장은 원주지역이 채란업을 하기 위한 최고의 적격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원주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 수도권 지역과도 가깝다는 장점을 들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이 체화되는 경우가 없고 월말(늦어도 월초) 현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양관리에만 신경쓸 수 있어 품질 좋은 계란이 생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 지부장의 설명이다.

원주지역은 타지역과는 다른 방식의 계란유통을 하고 있다. 생산자, 사료대리점, 계란유통상인이 서로 맞물려 신뢰를 갖고 계란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악덕상인을 배제하고 믿을 수 있는 상인들을 선정해 꾸준히 거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사료대리점에서 상인과 생산자간의 중간적인 역할(물론 결제도 사료대리점에서 함)을 해주기 때문에 상인들도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농장의 계란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난가는 월말에 이사회(생산자와 상인과의 만남)를 통해 수도권에서 발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적정한 DC가격을 결정한 후 곧바로 정산에 들어간다. 물론 일명 후장기 개념이지만 그달의 계란흐름과 계란의 품질 등을 생산자와 상인들이 상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상인과 생산자들이 합일점을 도출하기 위해 언성을 높여가며 장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한번 결정된 가격은 정확히 지켜지고 협상이 끝나면 서로 술 한잔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구본태 총무는 전국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DC로 인해 생산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주에서 월말에 개최되는 이사



매년 여름이면 단합대회를 열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다지고 있다.(7월 19일 강원도 용수골 모임시)



지난 7월 19일 원주채란지부 단합대회에 참석한 본회 최준구 회장과 함께(오른쪽부터 박영수 지부장, 정호홍 고문, 최준구 회장, 전의표 고문, 구본태 총무)

회에 타지역의 계우회나 지부에서 방문하여 협상과정을 지켜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방문하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난좌 공동구매 사업 등 이익도모

원주지부는 회원과 지부 운영을 위해 오래전부터 난좌 공동구매사업을 해오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개당 2원씩)을 지부의 운영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1석2조이다.

또한 원주지역의 양계인들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단합이 잘되는 지역이다. 매년 축협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에 타 축종에 비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우, 양돈 등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매번 차지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축협이나 시(市)에서도 양계인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타축종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용수골에서 개최되었던 단합대회에는 시청, 축협 직원은 물론 계란유통상인, 사료 관련인, 중추·노계업자 등 80여명이 다녀가는 등 잔치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었다. 박영수 지부장은 전국의 계란유통이 바로 잡혀 농가들이 편안하게 양계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하였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